

07

■ 온 가족 비엔날레 나들이

“온 가족이 차례를 지낸 뒤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세요.” 이번 추석은 일요일과 겹쳐 연휴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 차례를 지내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친척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빠

듯하다. 무작정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면 황금 같은 연휴가 모두 지나가 버릴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 2008 광주비엔날레 나들이도 좋을 듯하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광주비엔날레에는 세계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전시되고 있어 가족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모처럼 수준 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귀성객들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휴무 없이 전시장을 개방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 이런 공연·이런 전시도 있어요

추석 연휴에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가 열려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극심한 차량 정체로 지친 귀성객과 차례 지내느라 고생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온가족 문화 나들이로 연휴를 마무리해보자.

현대미술의 향연 빛고을 도심서 만나다

▲고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미술축제=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36개국 127명의 작가의 작품 1천4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주무대적인 중외공원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무등산 기슭의 의재미술관, 재래시장인 대인시장, 예술영화진흥관인 광주극장 등지에서 열린다. 광주 도심 곳곳에 추석 구경거리가 주렁주렁 열린 셈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길 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 색션의 71개 전시와 작품이 선보인다. 요하림 손필트의 ‘포 뮤지션스’, 한스 하케의 ‘넓고 하얀 흐름’, 돌로레스 지니·후안 마이다간의 작품 ‘광주의 모형’, 시슬레이 자파의 ‘칼린’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고든 마타 클락, 레이문도 알바노의 ‘해피 버스데이’ 등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 필리핀국립대학교 미술사 교수인 패트릭 플로레스가 기획한 제안 색션의 ‘발원지에서의 방랑전환’도 시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서구 중심의 세계 미술 관도가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마련됐다.

의재미술관에서는 허백련 선생의 대표작과 관람객들이 초콜릿으로 지은 집의 향기를 맡고, 직접 먹는 이색 작품인 마리야나 브니모브(베네수엘라)의 ‘초콜릿 쉼(Chocolate Shack)’ 등을 선보인다.

대인시장에서도 구성진 예술 난장이 펼쳐진다. 박성현 큐레이터가 기획한 ‘복덕방 프로젝트’가 열리는데 신호운, 마문호 등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다. 남도의 대표 음식인 흥어를 소재로 대형 활인 매장의 공예 속에 초라해진 재래시장의 현재 모습을 조명한다. 추석 당일인 14일에는 시장이 문을 닫아 전시가 열리지 않는다.



▲비엔날레 전시관에 설치된 모나 마주크 작 ‘발가벗은 신부’



▲의재미술관에 전시된 필리페 돌자이르 작 ‘가능한 이상세계’



▲광주대인시장 ‘복덕방 프로젝트’ 일환으로 그려진 상가 서터 그림.

▲풍성한 부대행사도 흥거위=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일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재단은 중외공원내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 등지에서 귀성객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참여 프로그램인 ‘수많은 이정표’를 운영한다.

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공원은 이 기간 스튜디오 카페 ‘발자국’으로 변신한다. 카페 ‘발자국’에서는 관람객들이 관람 후기를 글

과 그림으로 남기는 ‘관람객들의 이정표 보고서’와 시민들의 책을 기증받아 어린이도 서판에 전달해주는 ‘비엔날레 인연복덕방’이 문을 연다. 오후 시간대에는 이색 연휴와 공연이 어우러진 ‘광주를 여행하는 공연’ 등이 선보인다.

대인시장에서도 참여작가들이 흥어 모형(1만원)을 판매하고, 시장 상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골동품을 경매하는 등 아기자기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귀성객들은 관람료 할인=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귀성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재단은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11~13일까지 광주동광주통게이트 등지에서 광주비엔날레 할인권이 부착된 광고 전단을 나눠준다. 할인권을 가져오면 성인 기준 2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연휴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에서 출발, 광천동유스퀘어~김대중센터~시청~송정역을 2시간 간격으로 오가는 순환버스가 운영돼 편안한 관람을 돕는다. 전시장별 이동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매일 오전 9시 비엔날레 전시관 정문을 출발해 대인시장~광주극장~의재미술관 오가는 주요 전시관 연결 순환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은 버스 용봉 83, 상무 64, 송정19, 일곡 38, 금남 58, 금남 56, 금남 57, 첨단95번을 타면 비엔날레 전시장에 찾아가갈 수 있다. 주차 장소는 비엔날레 주차장(600면)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 주차장(400면), 전남도교육청 주차장(300면), 광주문화회관 주차장(700면), 비엔날레 정문 주변도로(50면) 등 5곳 총 2천405면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루벤스·바로크 걸작전’-광주시립미술관

▲추석에 즐기는 미술 향연=광주비엔날레에 실험성 강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했다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에서 열리고 있는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7월16~11월9일)은 중세 고전 미술을 감상하는 전시회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도 함께 열고 있어 현대미술과 고전 미술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루벤스~’전에는 ‘오레이티아를 납치하는 보레아스(Boreas Abducting Oreithya·1615)’등 루벤스의 대표 작품 19점을 포함해 바로크 작가의 작품 등 모두 75점이 선보인다. ‘오레이티아를~’은 북풍의 신 보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레이스가 사랑하는 아테네의 공주 오레이티아를 날개에 숨겨 납치하는 장면을 표현했다. 풍만하게 표현된 오레이티아의 몸과 파란 실핏줄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게 표현된 피부의 질감이 살아 있는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보험가액만 200억원인 대작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도 추석 연휴동안 지역작가들을 소개하는 ‘모놀로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최재영, 임남진, 전현숙, 박수만, 정운화, 주라영, 박상화, 박윤숙씨 등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현대인의 고독을 담은 회화와 조소 작품을 선보인다.

옛 전남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한 상록전시관에서는 ‘콜라주(Collage)’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상필, 심영철, 손봉채, 이이남, 오상조, 조덕현, 허희태 등 작가 7명의 설치, 영상, 사진, 서예 등 시각예술품 70점을 선보인다.

무등현대미술관도 귀성객들을 위해 한 지역 여성 작가 10여명을 초대해 2008 광주여성미술제’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주연, 박소빈, 허정수, 김진화, 최향, 배상운, 조은경, 전현숙, 옥현숙, 오혜경씨 등이 참여해 남도의 풍부한 색감을 선보인다.

‘우리 가락 우리 마당’-15일 광천터미널

▲흥겨운 공연도 다채=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은 14일 오후 7시 국악원 대극장 전악당에서 추석맞이 특별 공연 ‘달아 달아 밝은 달아’를 공연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악합주 ‘남도 굿거리’, 사물놀이 ‘관곳’, 판소리 입체창 ‘춘향전’, 부채춤, 진도 북춤 등을 선보인다.

매주 금요일 광천 터미널 U·스퀘어광장에서 열리는 ‘우리가락 우리 마당’은 오는 15일 오후 7시 추석 귀성길 특별공연을 준비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퓨전 국악 실내악단 ‘지음’이 출연해 국악가요, 국악 실내악곡, 국악가와 서양 악기가 어우러진 퓨전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08

재혼만 10년!

www.hbccl.co.kr

527-3388

보여 커를 매니저 직함 구입

ANYCHE CHAIR

Anyche

www.anyche.com